

【 P1-4 】

## 1998 · 2001년도 국민건강 ·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성별, 연령별 한국 전통식의 섭취현황

문현경, 강현희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dish intake using 1998 and 2001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oon, Hyun-Kyung, Kang, Hyun-H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현재 우리나라 식생활은 급격한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음식섭취 현황을 파악하여 식생활의 서구화 정도에 대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한국전통식 섭취 여부를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여 실제 식생활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서구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된 자료는 1998년·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각각 10,400명과 9,968명에 대한 식품섭취조사를 이용하였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사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의 재료 및 조리법에 따라 한국전통식, 동양식, 서양식, 한국절충식, 동양절충식, 서양절충식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1998년도 전체 10,400명중 남자는 4,984명, 여자는 5,416명이고, 2001년에는 9,968명 중 남자는 4,460명, 여자 5,208명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연령별 그룹은 0-2세, 3-6세, 7-12세, 13-19세, 20-29세, 30-49세, 50-54세, 65세 이상으로 8그룹으로 나누었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를 이용하여 각 년도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음식 유형별 음식 섭취수를 통계적 유의성 검증( $p < 0.001$ )을 위하여  $\chi^2$ -test 하였다.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음식유형별 음식섭취 현황은 1998년에 남성은 한국 전통식이 41,740가지(77.45%), 여성은 한국 전통식이 42,620가지(77.80%)이고 서양식은 남성이 7,342가지(13.62%), 여성이 7,686가지(14.03%)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식과 서양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에는 남성이 한국전통식에서 39,020가지(75.43%), 서양식이 8,424가지(16.28%), 여성은 40,309가지(75.25%), 서양식이 8,958가지(16.7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서양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에 비해 2001년도에 남녀 모두 한국 전통식의 비율이 줄고 특히, 여성에서 서양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음식유형은 1998년에 13-19세 그룹에서 한국 전통식이 7,734가지(80.72%), 서양식은 1,227가지(12.65%), 20-29세 그룹에서는 각각 8,684가지(76.94%), 1,644가지(14.57%), 30-49세 그룹에서 17,015가지(76.87%), 3,174가지(14.24%)로 연령이 높은 그룹일수록 전통식의 비율이 줄었고, 20-29세 그룹이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서양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13-19세 그룹에서 한국전통식이 8,014가지(68.02%), 서양식이 2,216가지(22.80%), 20-29세 그룹에서 각각 9,819가지(71.79%), 2,503가지(18.30%), 20-29세 그룹에 비해 13-19세 그룹에서 서양식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한국전통식

의 섭취비율이 높으나, 서양식의 섭취비율이 여성과 30대 미만 그룹에서 증가하여 식사패턴이 서구화 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지난 3년간 남, 녀 모두와 연령 그룹의 30대 미만에서 전통식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양식의 섭취비율이 증가한 경향으로 볼 때 서구화된 식사패턴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